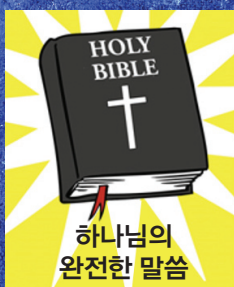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4 Number 05 **05** 2016



유신론적 진화론9

타협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주와 생물 진화를 인정하고 진화 이론을 수용한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수십억 년 동안 생존경쟁, 적자생존, 자연선택 등의 과정을 통해 진화와 멸종을 허용하셨다고 주장한다. 또는 “지질 시대를 그대로 인정한다”라고 말하며 창조와 멸종을 수없이 반복하셨다고 한다. 이와 같이 타협 이론에서 가장 쉽게 드러난 문제점은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성경 기록과 모순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타협이론**

것인데,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바꾸거나 부인한다는 점이다.

아래는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일관되게 보여주는 예들이다.

1.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거룩’이란 의미는 불완전, 죄, 피조물과의 구별된 완전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 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출 15:11)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삼상 2:2)

하나님께서서는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창 2:3). 자신의 성품을 그 피조물에 그대로 드러내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그분은 흠이 없 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시다.

2.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추측하 지 않으신다. 실험도 하지도 않으시며 그런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 하위의 것부터 만드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다. 단지 옳은 일만 하신다. 우리를 속이지 않으신다. 과거에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하지 않으시고,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하지도 않으신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은 후회도 없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일하게 무한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 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민 23:19).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 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 이라”(히 6:18)

3.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차차 어떤 것을 터득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는 지식의 소유자이 므로 불완전에서 자유하시다. 그분의 모든 계획과 목적은 이 전지하심에서 나온 것이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은 혼란스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배워야 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 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시 104:24)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

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사 40:14)

4.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동하고, 재생산되며, 살아서 완 벽히 기능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으시다. 이 전능함과 전지함이 함께 어우러지 기 때문에 처음부터 각 부속품들은 질서 있게 작동하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그분이 제한한 환경 안에서 완벽히 기능하며 재생산한다. 그분은 기능이 없는 것들을 창조하거나 다듬지 않으신다. 그분에게 우연한 것이란 없고, 쓸데없는



위치에 붙어있는 것도 없고, 낭비도 없다. 결국 그분께서 기뻐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 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사 40:26)

그러므로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계 1:8)로 말씀하셨다.

5.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이다. 하나님에 관하여 드러난 모든 것은 그의 생명이라는 영원 한 존재 위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성경 어디에도 생명의 하나님께서 죽음을 창 조했다는 흔적이 없다.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이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서 설계하신 피조물에 대하여 죽음을 좋게 암시한 곳을 찾을 수 없다. 성경은 오히려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의미한다. 죽음은 생명의 정지이며, 죽음은 모든 것이 파괴됨을 의미한다.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과는 결코 어울릴 수

없다. 그러므로 창조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यो, 진리요, 생명”(요 14:6), “부활ियो 생명”(요 11:25)이라고 말씀하셨다.

6.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께서서는 무소부재하신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하나님께선 우주나 사람같은 어떤 피조물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선 어떤 우주적인 의식체이거나 놀라운 힘도 아니시다. 그분은 의롭지 못한 존재인 사람이나 그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으며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욥 33:12).

7.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그분의 불변의 성품과 상반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가 만드신 창조물에도 흠이 있을 수 없다. 처음부터 설계된 그대로 선하게 기능하지 않는 어떤 피조물도 없었다. 그러므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반복하셨다. 하나님에 대하여 선하시다는 동일한 히브리 단어는 성경에서만 500번 이상 등장한다. 창조의 마지막인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다(very good)”고 선언하셨다. 이는 정말로 피조물들이 그분의 성품에 맞게 기능하고 있음을 말한다. 모든 무생물의 분자들과 각 생물의 기관들이 흠이 없이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사람의 범죄 이전에는 어떤 죄와 죽음이 언급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초월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성경은 그분의 이런 성품들과 능력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속성을 가진 분만이 진리이다.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으며, 그의 피조물 역시 그 창조자의 성품에 따라 처음부터 완벽히 기능하도록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생물들이 수없이 멸종했다는 모든 타협 이론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타협 이론들은 생물들을 반복적으로 멸종시키는 변덕스럽고 시행착오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 성경과 무관한 지질시대표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결코 어울릴 수 없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무(無)로부터 나온 우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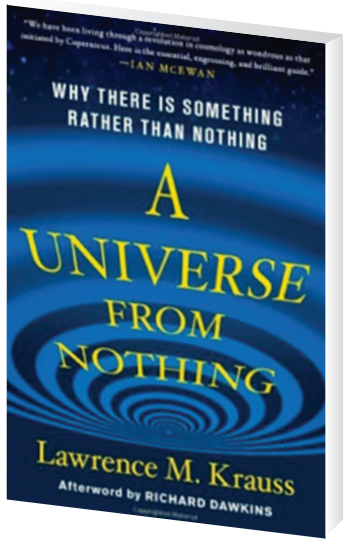
신의 창조주를 부인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다. 어떻게 우주가 무로부터 나올 수 있었는가? 그 도전이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주가 시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무한히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이 빅뱅 모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우주가 실제로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전제를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 시작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론 물리학자인 로렌스 크라우스는 최근의 책에서 물리학 법칙들이 우주를 무로부터 만들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다른 물리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다.

그들은 “가상입자”의 창조와 소멸이라는 잘 알려진 현상에 호소한다. 진공상태로부터 아원자적 입자가 자발적으로 잠시 나타나는 현상을 양자요동(quantum fluctuation)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아원자적 입자들은 매우 단시간동안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직접 관찰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입자들의 영향은 감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것들은 “램 이동 (Lamb shift)”라고 불리는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의 매우 미세한 작용을 일어나게 한다. 짧은 수명을 갖는 이 가상 입자들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의 원리 (Heisenberg Uncertainty

Principle)에 의해 지배를 받는데, 짧은 수명의 입자는 잘 정의된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고 기술된다.

그 불확정성의 원리는 양자요동이 지속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정한다. 요동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시간은 더 짧다. 이것이 가상입자가 왜 매우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크라우스와 다른 진화론적 물리학자들은 우주 그 자체가 이러한 양자요동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확정성의 원리는 이러한 주장에 명백한 어려움을 제공한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우주 전체의 에너지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 양자요동을 통해 우주가 태어나게 되었다고 주장할지라도,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존재 가능 시간은 거의 없고, 새로 태어난 우주는 즉각 소멸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엄청난 우주가 그러한 양자요동으로부터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진화론적 물리학자들은 만약 우주의 에너지 총량이 정확하게 제로라면, 우주는 불확정성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고 영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지혜로운 주장처럼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하나

님을 떠나 우주의 존재를 정말로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법을 찾았을까?

그렇지 않다. 그 주장은 전적으로 우주의 총 에너지가 정확히 제로라고 하는 주장에 달려 있고, 이 주장은 정확하게 빅뱅에 대한 가정에 근거한다. 스티븐 호킹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팽창에 관한 생각은 또한 우주에 왜 그토록 많은 물질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그 대답은, 양자 역학에서, 분자들은 물질로부터 물질과 반물질의 짝으로 창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야기한다. 그 대답은 우주의 총 에너지가 정확하게 제로라고 하는 것이다.”

호킹의 태평스러운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인간도 전체 우주의 정확한 에너지량을 알 수 없다. 우주의 총 에너지량이 정확하게 제로라고 하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주의 모든 에너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더하고, 그 합이 정말로 정확히 제로인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호킹의 지성과 학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주의 에너지가 제로라고 하는 주장은 직접적인 측정이 아닌, 빅뱅 모델이라는 여과장치를 통한 자료의 해석에 근거한다. 위의 인용글에서 알 수 있듯, 그 주장은, 우주가 빅뱅 직후 짧은 기간의 가속된 팽창을 거쳤다고 하는, 팽창이론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가속 팽창”은 수없이 많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진 최초의 빅뱅 모델을 구해내기 위하여 즉석으로 첨가된 생각이다. 호킹과 크라우스 그리고 다른 진화론자들이 제로 에너지 우주에 관한 주장을 펴는 이유는, 그것이 팽창이론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결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빅뱅과 팽창이론에 대해 선형적 현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주의 에너지 총량이 정확히 제로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지 않다. 사실,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욱이, 가상입자들이 진공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간에서 나타난다. 공간 그 자체가 우리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주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간 그 자체가 이미 태어났어야 한다.

크라우스는 최근 그의 책에서, 이 중요한 문제를 아주 조금 다루었다. 그 책의 대부분은 빅뱅이론에 대한 변호와, 입증되지 않은 이야기들, 그리고 창조론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책의 마지막에 가서야 그는 실제로 이 중요한 주제(어떻게 공간 자체가 무로부터 창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에 관하여 심각하게 이야기하지만, 200 페이지가 넘는 그 책의 매우 적은 지면만을 할애한다. 그는 양자중력(양자역학과 일반상대성 이론을 합병하는 이론)이 공간 자신이 스스로를 낳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관한 하나의 명백한 문제점은 양자중력에 관한 실행가능한 단 하나의 이론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Jake Hebert (Ph.D. in Physics) / 번역: 이충현

출처: Hebert, J. 2012. A Universe from Nothing? Acts & Facts. 41 (7): 11-13.





연합팀

지난 3월 19-24일 한국에서 여러 팀들이 연합해서 창조과학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탐사는 지난 번 참석했던 세 분의 청년들이 주위의 친구와 동료들을 전도하고자 초청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풀어짐과 동시에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믿는지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예



샌디에고온누리교회

연합팀



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며, 왜 십자가의 죽음을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지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자신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죽어있는 다른 자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의 여부를 통해서입니다. 이번 창조과학탐사는 그런 면에서 동기부터 마음을 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변화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지난 3월 26일 당일로 샌디에고 온누리교회에서 창조 역사 박물관 견학과 Torrey Pine State Beach 야외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창조 역사 박물관은 예전에 미국창조과학연구소(ICR)가 운영했었습니다. 지난 2008년에 ICR이

텍사스 달라스로 이전하며 Light and Life Foundation이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LLF가 인수한 후 인체관과 성막 전시관 등을 추가해서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견학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남가주에 계신 분들께서 성경과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많은 방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멕시코 브에블라 신학교 사역

이동용 박사는 지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박성근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멕시코 브에블라 신학교에서 창조과학학교 전 과정을 신학생들과 지도 교수님들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약 50여 명이 3일간 7시간씩 수업하였습니다. 과학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 속에 사역자들이 분별력을 갖추어 진화론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고, 성경말씀에 진실되게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이 말씀대로 행하신 내용에 적극 동의하며 기쁘게 배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준비해 주신 박성근 선교사님과 이스마엘 목사님, 영어스페니시 통역을 담당해 준 이현우군,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노회성 강사는 4월 10일 LA사랑의교회 청년부에서 '인류의 기원'을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청년들은 진화론 시대에 살면서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만이 인류 기원의 참 역사를 전달해주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멕시코 브에블라신학교

ITCM(창조사역집중훈련)을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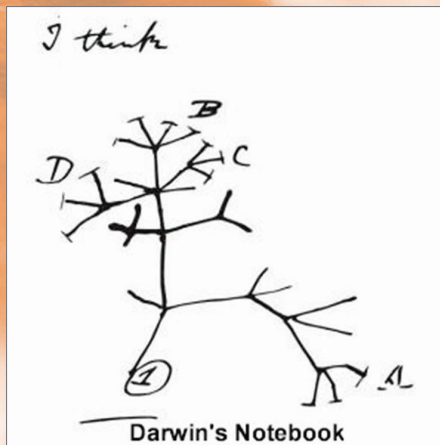
생각과는 달리 이곳에서의 훈련은 나에게 있어서 삶의 또 다른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었다. 무엇보다 성경과 복음에 대한 나의 인식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삶으로 온전하게 누리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때 가능한 한 회피하려던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하지만 창조과학훈련을 통해 성경의 진짜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역사를 알기 때문에 복음이 왜 필요한 것인지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서 성경에 대한 믿음이 더 선포될 수 있었다. 또한 이때까지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단순히 지식에 관한 부분을 얻었다면, 이번 훈련을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누리게 되었다.'

8주 동안의 강의와 훈련, 중간에 다녀온 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다음은 나의 일기에 기록된 내용 중 일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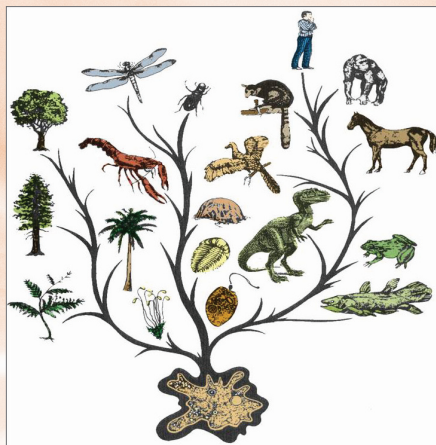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버리신 것 같다. 처음이 좋았다. 죄가 들어오기 전 완벽한 세상 속에,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제 각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세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들을 저주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이 땅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관영 하여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저주하시며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랜드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등 창세기 홍수의 흔적들을 보면서 '멋지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신이 직접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만물들을 저주하시고 멸하셨을 때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도록 아프셨겠지. 눈물이 흘렀다.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겠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다. 죄로 인해 목적을 벗어난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수많은 것을 양보하셨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은 강의와, 성경공부 그리고 탐사를 통해 더욱 확실해진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였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롬1:16)".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고 성경을 이제는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가 내게는 너무 크다. 멀리 있던 십자가가 이제는 나의 삶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 나의 삶을 변화시킨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크다!

ITCM 7기 김지윤(고신대 3년)



교과서와 기원문제(9)



생물 ‘종’의 구분은 서로 간의 ‘유연관계’를 말해주는가?



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생명의 진화”라는 단원은 그 동안 살펴 본 바와 같이 무기물에서 유기물, 유기물에서 원시세포, 단순한 원시세포에서 복잡한 진핵세포, 그리고 수많은 진핵세포로 구성된 식물과 동물들로 저절로 진화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다. 각각의 단계가 순전히 자연적 과정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정보를 필요로 하며, 그 정보를 해독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연히 단 한 번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증거 없는 해석을 계속 덧붙여 놓았다. 그런 일련의 진화 스토리 다음에, 마치 공연 마지막에 모든 출연자들이 함께 나와 피날레를 장식하는 듯 ‘진화나무’라는 것을 등장시킨다.

진화계통수라고 불리는 이 나무 모양의 그림은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하여 세균들과 진핵생물들 그리고 다양한 식물과 동물, 게다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의 생물이 가지처럼 뻗어나온 모양을 하고 있다. 수십억 년의 진화 역사를 한 눈에 보여주는 그림이다. 무엇을 근거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교과서는 바로 ‘유연관계’(조상-후손 관계를 갖는다는 뜻임)라는 것을 통해 생물의 진화 계통수를 그렸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모든 생물의 조상이 되는 최초의 원시세포를 공통조상(universal common ancestor)이라고 일컫고 있다.

“무수한 생물 종들을 어떻게 구분할까? 생물 종들 간의 공통점이나 유사성을 활용하면 종들 사이에 유연관계를 알 수 있을까? ...생물 종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들을 찾아서 계통을 세워 보면 모든 생물들은 약 35억 년 전 지구상에 생겨난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 단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생명의 다양화에 이르는 주요 과정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였다.”^[1]

교과서에 태연하게 진술된 이 짧은 글 속에는 과학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많다. 진화론자들은 무엇을 보고 생물 간의 유연관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일까? 그것은 안타깝게도 무엇을 보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유연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에서 시작하였는데, 다윈은 화석이 생물의 진화 역사를 보여줄 것이라 믿었다. 화석이 형성된 순서가 그의 핵심 주장 중의 하나인 단일 공통조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2] 그리고, 어떤 생물 화석들이 어느 지층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지층부터는 사라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다윈은 아래 지층에 살던 생물(A)로부터 위의 지층에 나타난 생물(B)로 진화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해석을 바탕으로 생물 종 A와 생물 종 B 사이에 형태적 유사성이 있으면 조상과 후손 관계라고 추론하고, 나무 가지처럼 뻗은 선으로 연결시켰던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정말 진화적 유연관계를 갖는다면, 생물 종 A와 생물 종 B 사이를 메꿔주는 중간체가 연속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화석에는 그런 생물들 즉 반어류, 반파충류, 반조류 같은 생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시조새와 같이 논란이 되었던 것들은 매우 드물게 있으나 연속적인 중간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종과 종 사이의 빈틈을 메워주는 사례는 단 한 가지도 없다.

최초로 종 분류체계를 확립한 린네(1707~1778)는 “모든 생물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되었기에 이러한 분류작업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무슨 뜻인가? 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서로 간에 뚜렷이 구분되는 생물학적 경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처음부터 존재해왔으며, 유전법칙에 의해 끊임없이 후손에게로 전달되고 있다. 다양한 고양이, 다양한 개는 있지만, 고양이와 개의 중간체는 없으며, 또한 고양이와 개로 전환될 수 있는 유전학적 메카니즘도 없다. 어떤 생물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므로, 생물 종의 구분은 종간의 유연관계를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불변을 보여준다. 유전법칙과 생물들의 게놈(genome)이 밝혀질수록 우리는 창세기 1장에 10번이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강조하신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확인할 뿐이다. 유연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 진화계통수가 지난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인 것처럼 교과서에 실려서는 안될 것이다.

노회성 / 과학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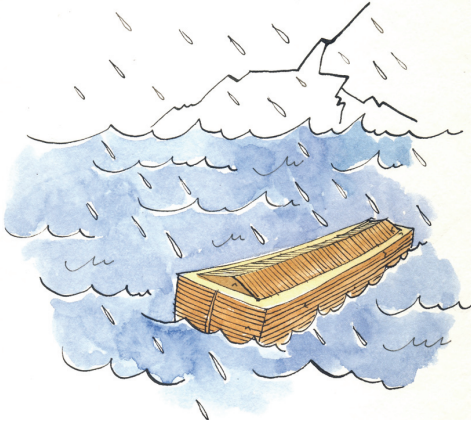
[1] 안태인 외 11인, 고등학교 과학, 금성출판사, p136, 2011

[2] 스티븐 마이클 외, 생명의 진화에 대한 8가지 질문, 21세기북스, p16, 2011

창조과학탐사

간증 / 대구 참좋은교회

1/26-29, 2016



배운 대로 보고 사고하며 성경도 내 생각대로 제한하고 살았는지 다시 생각하며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바로 넘겨 주는 주일학교 사역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다짐해봅니다. - 김순영

그곳에서 선교사님의 설명을 듣고 그랜드 캐니언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죄악으로 이 땅을 쓸어버린 생생한 현장이 너무 가슴에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 전영미

그랜드캐니언을 본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마음 한 편에 선하신 하나님께 끝없이 반항과 불순종한 인간의 죄악을 철저히 볼 수 있었습니다. - 신계옥

성경 속 노아 홍수가 전 지구에서 일어난 사건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 허해정

이제 나도 증인 된 삶을 잘 살아내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워 다음 기회가 되면 꼭 보내고 싶다. - 이정숙

창조과학탐사 전날까지도 진화에 대한 생각에는 전혀 의심도 없었고 또 그렇게 장기간 배워 당연시하였다. 직접 체험과 선교사님의 말씀과 증거물로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 - 문순자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증은 Homepage(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역 일정 2016 ACT Schedule

5/2-10	창조과학탐사 (서울드림교회), 이재만
5/13-19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5/14	창조과학그룹스터디 (노회성)
5/19-26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5/28	창조과학세미나(주님의빛교회), 이재만
5/31-6/8	창조과학탐사 (전주동은교회), 이재만
6/8-13	창조과학탐사 (합동신학원교수), 이재만
6/20-23	창조과학탐사 (예수인교회EM), 김선욱
6/22-29	창조과학탐사 (햇빛트리니티 CEO스쿨), 이재만
6/25-27	창조과학탐사 (KIBI America), 김낙경
7/3-10	창조과학탐사 (일산산성교회), 이재만
7/14-20	창조과학탐사 (한동대학교교수), 이재만
7/21-24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고등학교), 이재만
7/26-29	창조과학탐사 (전주목원교회), 이재만
7/30-8/4	창조과학탐사 (크리스천언론기자), 이재만
8/4-8/12	창조과학탐사 (인천온누리교회/와이즈마더링), 이재만
8/15-8/19	창조과학탐사 (일본팀), 이재만
8/22-8/26	창조과학탐사 (부산호산나교회), 이재만
8/29-9/1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초대교회/노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